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경선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적 · 감정적 자기 표현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김 은 선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적 · 감정적 자기 표현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강경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김 은 선

인 준 서

김은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적 · 감정적 자기표현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악치료가 언어적 · 감정적 자기표현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2010년 2월7일부터 5월3일까지 주 1회 40분씩 총12회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대구 K근로자 회관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들 중 초등학교 3학년 아동으로 남아 2명과 여아 1명, 총 3명으로 구성되었다.

자기표현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언어표현과 감정표현으로 나누었고, 측정도구로는 다음과 같은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언어표현 척도는 김영태, 성태제, 조운정(2002)이 개발한 것으로 사용하여 아동들의 수용언어와 표현 언어 간의 연령 차이를 사전·사후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했다. 감정표현 척도는 Rakos 와 Schroeder(1979)의 주장 행동 척도를 변창진과 김성희(1980)가 우리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 개발한 자기표현 평정척도를 사용하였고, 감정표현척도는 검사지의 점수를 사전·사후 비교하여 분석하여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적 자기표현력 증진에 대한 사후 검사결과로 대상 아동들이 사전 검사 결과에 비해 평균적으로 수용언어에서 5개월, 표현 언어에서 9개월 향상되었다.

둘째, 음악치료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감정적 자기표현력 증진에 대한 대상 아동들의 사후 검사결과에서 사전 검사 결과에 비해 평균점수가 8점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적 ·감정적 자기표현력 증진에 효과적인 중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필요성.....	1
2. 연구가설.....	3
II. 이론적 배경.....	4
1. 다문화가정.....	4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형성.....	4
2) 다문화가정 아동의 개념 및 현황.....	6
3)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징 및 문제점.....	8
2. 자기표현력.....	9
1) 자기표현의 정의 및 필요성.....	9
2) 언어표현.....	10
3) 감정표현.....	11
3. 음악치료와 자기표현력.....	13
1) 음악치료에서의 자기표현	13
2) 음악치료에서의 언어표현.....	14
3) 음악치료에서의 감정표현.....	15
4) 언어적 · 감정적 자기 표현력 증진을 위한음악치료 활동들.....	16
III. 연구방법.....	24
1. 연구대상.....	24
2. 대상선정 검사 도구.....	26
3. 측정도구.....	26
4. 연구 설계 및 절차.....	27

5. 연구 자료 분석.....	28
6. 프로그램 구성 및 활동 내용.....	29
IV. 결과.....	33
1. 언어적 자기 표현력 증진에 대한 결과.....	33
2. 감정적 자기 표현력 증진에 대한 결과.....	37
V. 결론 및 제언.....	43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다문화가정의 유형.....	4
<표 2>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	5
<표 3>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 현황.....	7
<표 4> 대상아동들의 언어발달 점수결과.....	24
<표 5> 프로그램 구성.....	29
<표 6> 음악치료 활동 프로그램.....	29
<표 7> 수용 · 표현 언어표현력 사전 · 사후 검사 결과.....	33
<표 8> 음악치료에서 감정표현평정척도의 사전 · 사후 총점 점수 결과.....	38
<표 9> 감정표현척도의 하위요인별 사전 · 사후 결과.....	38

그림 목 차

<그림 1> 외국인 주민 현황.....	5
<그림 2> 대상자A 수용 · 표현 언어력 사전과 사후 검사 결과.....	33
<그림 3> 대상자B 수용 · 표현 언어력 사전과 사후 검사 결과.....	36
<그림 4> 대상자C 수용 · 표현 언어력 사전과 사후 검사 결과.....	37
<그림 5> 대상자A 감정표현 척도의 하위별 사전과 사후 검사 결과.....	39
<그림 6> 대상자B 감정표현 척도의 하위별 사전과 사후 검사 결과.....	40
<그림 7> 대상자C 감정표현 척도의 하위별 사전과 사후 검사 결과.....	41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국제결혼, 외국 유학생, 이주노동자들의 증가로 매우 빠르게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지방행정국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통계로 90일 초과 국내거주 외국인주민(국적취득자, 불법체류자 포함)은 110만 명으로 인구의 2.2%에 해당되며, 이중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국제결혼이주자 및 혼인귀화자) 및 자녀 등은 809,019 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73.1%에 해당된다. 이는 2008년 640,119명 58%에 대비 15%가 증가한 수치이다. 그 중에서도 2009년 5월 국제결혼가정 전체 학생 수는 24,745명이고, 초등학생 20,632명, 중학생 2,987명, 고등학생 1,126명으로 초등학생수가 월등히 많다. 저학년 그리고 저 연령층 일수록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9).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와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인적교류와 다양한 문화의 접촉에 따른 갈등의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외국문화의 접촉을 통하여 한국 사회와 문화가 보다 역동적이며 창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중 다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외국인이 어머니인 경우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의 양육으로 인해 그 자녀들은 언어발달 지체, 문화 부적응, 따돌림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전우홍, 2009).

대부분의 아동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데, 이때 어머니와의 상호관계에서 아동은 언어의 습득과 자아(自我), 인성(人性)이 형성된다.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경우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유아기에 언어발달이 지체되어 자신 있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두 나라의 문화가 혼재된 가정교육과 한국의 학교교육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정체성 혼란을 느끼게 된다(박수정, 2009).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친구들과로부터 따돌림

을 당하는 상황은 낮은 자기 표현력과 부정적 자아 정체감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져오게 되어 아동기에서 청소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다문화 사회에서 새로운 소외계층이 형성될 수 있으며, 사회양극화와 또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2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의 누적 때문에 더 큰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오성배, 2006).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원만한 또래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불안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자기 표현력이 요구된다.

자기 표현력 증진을 위한 중재로서의 음악은 감정을 표출하게 한다. Radocy 와 Boyle(1997)에 의하면, 음악은 평소 잘 처리하지 못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며 슬픔, 기쁨, 공상, 놀람 등의 많은 감정적 느낌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어진다. 멜로디, 리듬, 화음 등의 요소로 구성된 음악은 인간의 사상이나 내면상태 혹은 기쁨, 슬픔 등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상징적인 표현을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승현, 2000 재인용). 또 Brooks(1989)는 음악치료활동에서 자신이 어떤 악기를 선택하는지, 어떤 음색을 좋아하는지, 어떤 패턴으로 연주하는지 등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선택들은 그 자체만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주요한 치료적 개입의 시작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그룹이 노래를 부르고 악기연주, 노래 만들기, 음악극 등을 통하여 적절하고 안전한 자기표현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박수정, 2002 재인용). 특히 노래를 이용한 음악 치료적 접근은 자기 표현력 향상을 위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중 노래심리치료(Song Psychotherapy)는 감정과 억압된 내용(비현실적 사고, 소망, 자기인식)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하며, 그렇게 표현된 말, 생각과 느낌을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노랫말은 그들이 겪는 것을 잘 표현함으로써 자기표현의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그 밖의 노래의 재료들도 의사전달에 쓰일 수 있다. 또한 노래에 나타난 주제와 느낌을 나누도록 권장함과 노래 선택과 뒤이은 토론을 통한 활동도 자기표현력 증진에 매우 효과적이다(이규정, 2002).

자기 표현력에 관한 음악치료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송영숙(2005)은 노래치

료를 통한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기표현 사례연구에서 노래치료의 접근 방법을 통해 언어나 음악적인 내용에서 질적으로 향상되고, 양적으로 증가되었음을 증명하였고, 김은정(2007)는 결손가정 청소년의 자기표현을 위한 노래 만들기 활동 연구에서 결손가정 청소년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을 표현하고 정리하며 통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증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언어적 · 감정적 자기 표현력의 부재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언어적 · 감정적 자기 표현력 증진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려한다.

2. 연구 가설

- 1)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적 자기 표현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 2)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감정적 자기 표현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형성

현재 우리사회는 세계화 · 국제화의 진입과 함께 국제결혼의 증가라는 현상으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혼재되어 문화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에 의해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multiculture)’라는 개념이 자리하기 시작하였다(김일곤, 2009). 다문화는 여러 인종의 여러 문화라는 뜻으로, 다문화가정은 최근 우리사회에 생겨난 신조어이다. ‘다문화가정’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져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가정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단순히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국제결혼가정’이라 칭하였으나, 지금은 ‘다문화가정’으로 부르도록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3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는 ‘국제결혼’ 및 ‘혼혈아’ 등 명칭에 있어서의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요소를 추방하고, 그 대신 ‘다문화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2세’ 등으로 부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관련단체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다문화가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김갑성, 2006).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유형을 가정형성의 배경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 범주화 하면, 다음과 같이 두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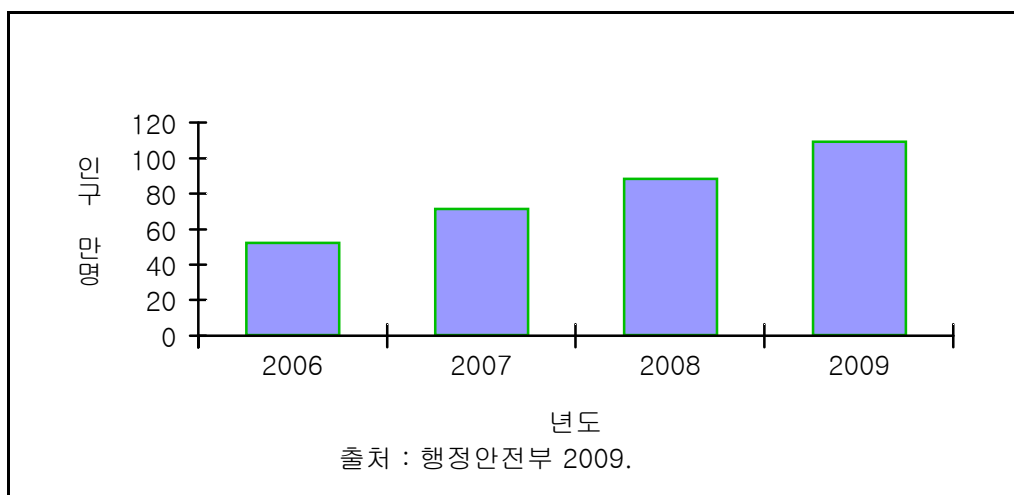
<표 1> 다문화 가정의 유형

(자료; 서혁, 2007)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 ·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자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 이주한 가정 · 외국인 근로자로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그림 1>은 2006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외국인 주민현황으로 외국인 주민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 수치는 결국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 원인으로서는 저 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인 노동력 유입 증가, 서비스 시장 개방화에 따른 전문 인력진출 확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수 증가, 외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1> 외국인 주민 현황 (2006~2009)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대부터 농어촌 지역의 특성, 종교적 이유 등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총 혼인건수 대비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 증가하였다(전우홍, 2009).

<표 2> 외국인과의 혼인 건 수

(단위: 건)

년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2001	320,063	15,234	10,006	5,228
2003	304,932	26,658	19,214	6,444
2005	316,375	43,121	31,180	11,941
2007	345,592	38,491	29,140	9,351
2008	327,700	35,470	27,577	7,893

<표 2>는 연도 별 국제결혼의 수치를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록 2007년 이후의 국제결혼 수치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표 2>는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국제결혼 건수에서 외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보다 증가추이의 폭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통계청 인구동태 자료에 의하면,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은 대부분 본국에서 취업이나 결혼을 위해 국내로 이주한 아시아 국적을 지닌 여성이 대부분으로, 국적별로는 중국(46.9)%, 베트남(29.4)%, 일본(4.1)% 순이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편의 국적을 보면 일본(34)%, 중국(26)%, 미국(17)% 순으로 대부분 선진국인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남성과 한국의 여성이 외국인과 혼인을 하게 되는 국적과 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9).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은 흔한 일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증가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남녀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여성의 부족난, 농촌여성의 도시이주 현상으로 인한 농촌총각의 증가,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음과, 그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가는 사회인식의 구조변화, 외국 노동력의 유입,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들 수 있다(강주연, 2009).

2) 다문화가정 아동의 개념 및 현황

다문화가정 아동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로 정의 될 수 있다. 최근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동남아시아의 여성 결혼 이민자 자녀를 ‘혼혈아’ 또는 ‘코시안’ KOSIAN (KOREAN+ ASIAN)으로 부르고 있으나 이들에게 별도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이들 인권에 대한 비하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가치중립적 용어인 ‘국제결혼가정 자녀 또는 결혼이민자 자녀’로 부른다. 또한 이들은 국제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제31조에 의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학급 진학별로 다문화가정 자

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초·중·고 재학생 수는 2008년에 전년도 대비 39.6% 증가했고, 2009년에도 31.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 현황 (09, 교과부) (단위; 명, %)

구분	연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국제결혼가정 자녀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13	38.9	761	84.0	18,778	39.6
	2009	20,632	30.5	2,987	35.0	1,126	48.0	24,745	31.8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2006	1,115	↑ 12.0	215	↑ 39.0	61	↑ 73.1	1,391	↑ 11.6
	2007	755	↑ 32.3	391	↑ 81.9	63	↑ 3.3	1,209	↑ 13.0
	2008	981	↑ 29.9	314	↑ 19.7	107	↑ 69.8	1,402	↑ 15.9
	2009	834	↓ 15.0	307	↓ 2.2	129	↑ 20.6	1,270	↓ 9.4

<표 3>의 통계자료를 보면 특히 2009년도 다문화가정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중, 고등학교 학생 수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자부 조사에 따르면, 2008년 만 0-6세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33,140명으로 이들이 모두 취학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2014년에 총 취학 학생은 2008년 대비 약 1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오성배, 2008).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자녀 중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년 결혼하는 가정 중 10% 이상이 국제결혼으로서, 현재의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2020년에는 다섯 가구 중 한 가구, 우리나라 인구 중 약 3%를 다문화가정이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 당장 2012년 이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 10명 중 1명(10%)이 다문화가정 자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크리스천투데이, 2008).

3)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징 및 문제점

요즘 우리사회는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그 자녀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문화적 차이, 가족 간 의사소통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적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겪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업부진이다.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정 아동은 한국어 능력 부족, 기초학습 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아동들이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입학 준비도 부족, 가정교육 지원 부족으로 인한 학습결손 등은 자녀의 기초학력 부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전우홍, 2009).

둘째,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은 정서적 충격의 경험이다. 설동훈(2005)의 연구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의 아동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로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34.1%)’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20.7%)’, ‘특별한 이유 없이 (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13.4%)’, ‘외모가 달라서(4.9%)’ 순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정체성의 혼란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어머니의 정체성과 한국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화충돌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전우홍, 2009).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긍정적 자아정체성의 확립, 자신이 속한 이중문화의 균형 있는 이해, 또래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자기 표현력이 요구된다.

2. 자기 표현력

1) 자기표현의 정의 및 필요성

자기표현이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과도한 불안감 없이 편안하게 표현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유태영, 2001). Fensterheim(1972)은 자기표현을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행동, 느낀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행동 등을 적극적으로 생활에 접근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박수정, 2002 재인용). 김인자(1996)에 의하면, 자기표현이란 단지 한가지에만 국한된 능력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폭 넓게 전달하는 능력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즉 자기표현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 느낌, 생각 등을 솔직히 드러내는 의사소통의 폭 넓은 행동방식이라 할 수 있다.

대개 아동들은 집단에서 소속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안에서 인정받는 것을 중요시하며 또래와 우정을 나누려는 강한 욕구를 가진다. 하지만 자기 표현력이 낮은 아동들은 또래에 대한 반응 및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조롱이나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정서적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여 소극적이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되어 정서적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이경숙(1999)의 의하면, 감정표현의 부적절성은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어 대인관계의 위축 및 불안과 스트레스 등을 동반하게 된다하였고, 이영실(1995)은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타인의 정서를 파악하고 자신의 정서 상태를 적절히 표현하여 해소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회생활의 부적응적인 행동의 원인 중 하나는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데서 기인된다고 하였다. Taylor(1984)는 감정표현 불능증을 방어라기보다는 심리적 결함으로 보았다. 즉 감정표현 불능증은 자신의 내적 태도, 소망, 동기 등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며,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기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도 공감적이지 못하

는 심리적 결함이라 하였다(박수정, 2002 재인용). 이러한 부적절한 감정표현과 감정표현 불능증은 대인관계에서 상호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게 한다.

Alberti 와 Emmons(1978)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표현적인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게 되어, 일의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하게 되며 성공과 함께 성취감을 얻게 된다(김영희, 2006 재인용)하였고, 송성자(1985)의 연구는 자기표현능력이 좋은 대학생은 학교생활과 심리적 · 신체적 안정감과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상에서 자기표현은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자기 표현력의 부재로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상대를 존중하면서 자기를 솔직하고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언어적, 감정적 자기 표현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언어표현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은 언어의 상징성을 통한 의미전달이다. 언어는 사람의 의사소통, 학습의 습득, 정보획득 등이 대부분 언어라는 전달매체로 이루어진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로서 아이디어, 지식 및 정보의 교환이 사람들과의 언어표현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원만한 관계를 맺어가며,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최순혜, 2005).

문형순(1997)에 의하면, 대화하는 상대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표현의 능력은 아동의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만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성취를 위해서도 필수적이고 아동의 사회 ·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발달적 측면에서 학령기 아동은 또래와의 접촉이 늘면서 그들과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기이다. 이시기 아동은 느낌이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고자할 때 이미 자신에게 획득되어 있는 언어내용과 수준을 기초로 해서 언어표현을 하게 되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동안 스스로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표현의

기회를 많이 가져 본 아동일수록 그 언어적 기술의 수준이 높아지고, 동시에 의사소통의 세련된 기술 습득으로 또래관계에서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김수정, 2006).

의사소통은 언어뿐 아니라 인간의 여러 행위, 즉 그림, 노래, 춤 등과 같은 행위들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그 주된 목적은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음으로써 공유된 의미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다(배태영, 1996). 의사소통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양한 견해의 차이를 조화시킴으로써 공동의 이해를 형성하게 된다. 공동의 이해는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인의 의사와 타인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상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정체로 주로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성취된다(박지은, 1996).

언어표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Black 과 Logan(1995)의 연구의 경우, 언어의 기술적 결함은 또래와의 대화 또는 다른 사회적 상호작용을 감소시켜, 또래들 사이에서의 인기를 낮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고, Dodge(1983)의 연구에 따르면, 비인기 아동은 언어적 남용과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한 대화기술을 수행하는 반면, 인기 아동은 협동적이고 사교적이며 적절하고 성숙한 대화의 기술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최윤미, 2008 재인용). 이와 같이 인간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 유지하게 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언어표현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3) 감정표현

사람은 매일 정서를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며 생활한다. 생각, 행동, 그리고 언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사람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대부분 감정을 유발한다. 감정이란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일에서 마음을 느끼는 기분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생기는 주관적 동요를 의미한다. 그것은 감각이나 관념에 따라 일어나는 주관적 정신활동으로서 흔히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쾌·불쾌를 중심으로 하는 의식의 주관적 측면을 말한다(구아민, 2009).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다. 이때 아동은 자신의 감정, 느낌, 욕구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감정이나 권리도 존중하며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김정민, 1990).

감정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양가적인 감정이다. 긍정적 감정은 행복감, 안정감, 만족, 자기 확신, 자기 자신감, 사랑, 기쁨, 따뜻함 등을 말한다, 부정적 감정은 자기 파괴적인 감정으로 죄책감, 분노감, 두려움, 우울감, 불신, 혐오감, 거부감, 적대감 등을 의미하고, 양가감정은 같은 대상에 대해서 갈등적이고, 모순적인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문희, 1997).

외부적 자극에 대한 인간내면의 작용이면서 사회적 영향을 받아 표현되는 감정의 표현은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감정표현에는 사람들의 의미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을 때에 사용되는 모든 상징과 단서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허유정, 2000). 즉 감정표현은 타인의 감정을 읽어 내고 타인의 느끼는 감정을 다시 감정이입하여 자신의 것 인양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면 할수록 타인의 감정도 잘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은 사람 사귀는 기술의 기본이 되며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으며 어떠한 기분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알게 하는 사회인지 능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타인의 정서 반응을 능숙하게 인식하고 그 반응에 감정이입으로 반응하게 하는데, 이를 통해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회 적응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진선주, 2004).

신현균(2000)의 연구에서,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표현 불능증은 직접적인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고, Grats(2006)는 아동기의 학대와 정서·감정의 비표현성 연구에서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자해 빈도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함자영, 2005 재인용).

따라서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으로 인해 자기의 의사나 감정 및 욕구의

표현을 자제하거나, 억압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불안정하거나 긴장 속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심화되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적절한 감정표현의 능력이 필요하다.

3. 음악치료와 자기표현

1) 음악치료에서의 자기표현

Zoller(1991)에 의하면, 음악은 만국 공통어로 모든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선천적인 요소인 리듬과 멜로디는 인간의 표현과 성장에 중핵이 되고, 인간은 음악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끼며 음악을 선호한다. 예술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음악은 사람의 마음에 직접 음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며, 언어가 접근할 수 없는 진리나 감정의 본질을 드러내므로 강하게 인간의 마음 깊이 호소하며 정서에 작용한다고 하였다(이영재, 2000 재인용). 또 음악은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고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며, 표현해주는 도구로 기쁨, 슬픔 등 언어로 표현되지 못하는 미묘한 감정까지도 적절히 표현하게 하여 내면적인 감정을 재확인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박수정, 2002). 이러한 음악의 특성들은 사회적 위축과 자신에 대한 무기력감으로 인해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감정 표현으로 의사소통의 장애를 겪는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 및 자아 존중감 향상, 그리고 부적응 행동의 감소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치료도구가 된다.

음악치료에서 자기표현은 그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인 판단을 받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이 솔직하게 표출되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 특성으로 인해 음악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나 발화하기 어렵고, 언어를 거부하거나 다른 언어를 갖는 아동 등 여러 가지 증세에 대한 효과도 지닌다(최병철, 1999). 음악치료에서 음악의 사용은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자신의 느낌, 또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아동의 정서, 감정, 그리고 느낌과의 만남을 촉진시켜주고, 그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정현주, 2006).

음악치료에서 아동은 다른 아동의 음악을 수용함으로써 타인의 의견에 경청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데 음악적 교류를 통하여 아동은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터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사소통을 익힐 수 있다. 따라서 음악치료는 그룹 상호작용에서의 지지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언어 표현과 감정 표현을 함으로써 필요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박해진, 2008).

이와 같이 음악치료는 아동이 경쟁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협력하게 하는 것으로, 신체나 악기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적 대화를 통한 만족감과 사회적 수용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음악적 환경은 아동에게 친근감과 편안함을 제공하여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모습을 가식 없이 자신 있게 표현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표현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2) 음악치료에서의 언어표현

언어와 음악은 소리의 강약, 리듬, 멜로디 등의 구조와 적용방식에서 유사한데 이것은 서로 상호적인 의사소통의 체계라 할 수 있다. 언어와 음악의 표현과 적용방식을 보면, 음악에 사용되고 있는 멜로디의 구(phrase)는 언어의 문장을 반영하고, 쉼표(rests)는 호흡을, 음정(pitches)은 억양을 반영하며, 음악적 요소인 리듬은 말의 강세, 길이, 빠르기와 유사하다(최성규, 2000). 언어와 음악은 말소리, 크기, 강약, 고저, 장단, 억양, 어조 등과 같은 준언어적인 요소와 표정, 몸짓, 자세 등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언어는 멜로디와 리듬 패턴의 흐름이 생기게 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감정들을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되게 한다(김태련, 1994).

언어와 관련된 노래 부르기는 어떠한 내용을 서술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며, 서술을 좀 더 쉽게 하는 수단으로 독특한 리듬을 가지므로 언어발달에 매우 효과적인 매체가 된다. 노래 부르기에서 언급되는 언어는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말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아동으로 하여금 언어표출에 대한 기쁨, 그리고, 의욕을 갖게 한다(김수진, 1997). 노래 부르기는 호흡, 강도, 발음, 리듬, 울동, 음의 고저, 선율 등에서 언어

사용과 유사점을 공유하며 노래의 가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리듬, 멜로디, 프레이즈와 같은 음악적 요소들은 상호작용으로 아동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허인숙, 2000).

강성미(2003)의 연구에서, 구어능력은 지니고 있으나 적절한 표현어휘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대화체 중심의 노래 부르기 활동을 시행한 결과, 지적장애 아동들의 수용 및 표현 언어능력이 향상 되었으며, 의사소통 행동 발생률이 증가하였고, 의사소통 기술 향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최병상(2000)은 3명의 지적장애아동에게 전래 동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언어지도를 30회기 동안 실시한 결과, 정신지체아동의 수용 및 표현 어휘 향상에 효과적임을 증명했다. 또 황지연(2001)은 자폐아에게 대화체 형식으로 만들어진 노래 부르기를 적용한 언어 훈련에 대한 연구의 결과, 대상 아동은 요구하기, 두 단어 동사표현하기, 의성어 표현하기의 세 가지 언어 영역에서 향상을 보였는데, 이는 가정에서도 일반화 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음악은 언어표현 및 의사소통 향상에 있어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증명해 준다.

3) 음악치료에서의 감정표현

음악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음악은 사람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어,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속에서 적절히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 한다(지은미, 2001). 음악은 인간의 몸과 마음, 감정에 영향을 주며, 잠재의식 속에 감추어진 많은 것을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이것은 좋은 음악이 인간의 정서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최애나, 오은주 2009).

음악활동을 통해 아동은 현재 자신이 느끼고 있는 긍정적·부정적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 손뼉을 치거나 악기를 두드리거나,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또는 리듬을 따라 몸을 흔들거리게 되는데, 이는 아동에게 동기를 유발시키며, 유대감을 갖도록 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게 하고, 또한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사회 및 정서반응을 일으키게 돕는다(김혜경, 박현옥, 2000). 음악 경

힘을 통해 아동은 정서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으므로, 아동 스스로 창의적으로 시도하고 감정을 표현할 때 자신감과 만족감, 그리고 다양한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김경희, 1998).

Luise 와 Edgar(1978)의 연구에 의하면, 능동적이고 리듬에 기초한 타악기 활동은 자기표현을 촉진 시키며, 공격, 적대감 감소의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을 치는 것은 몸의 움직임을 리듬과 소리로 변형시키는 행동이고, 초조감이나 자극적인 감정, 고통 등을 손으로 느끼는 일종의 신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분노, 격분, 증오와 같은 감정은 연주를 통해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것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진선주, 2005 재인용). 최애나와 오은주(2009)의 음악치료가 경도정신지체 아동의 감정어휘습득 및 감정표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경도정신지체아는 음악치료적용 후 감정어휘습득 및 언어 발달의 촉진에 효과를 보였으며, 자기 감정표현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천미온(2003)의 음악치료가 학습장애 아동의 자기표현력, 사회성 및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도 학습장애 아동의 음악치료 적용 후 회기가 지날수록 자기표현요소,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표현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음악활동은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의 조성과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감정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긍정적 감정의 경험을 촉진시키고, 타인과 더불어 감정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4) 언어적 · 감정적 자기 표현력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활동들

가. 노래 부르기

인간이 처음 접하는 음악의 경험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한 자장가 노래이다. 어머니가 부르는 자장가 노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기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주게 되어 아기와 어머니 사이에 정서적 소통을 형성하게 한다(성정아, 2002). 이때 아기는 어머니의 자장가 노래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감각적, 정서적인 인식의 단계에서 경험하게 된다. 어머니의 자장가 노래에는 일상에서 아기

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리상태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포함되어 있어 어머니는 그를 통해 아기와 소통할 수가 있다(황수진, 2002). 이는 인간의 노래활동이 언어 습득이전의 단계에서부터 소통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원천이기 때문에 노래활동은 인간의 본능적 능력이 된다.

노래 부르기는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특히, 학령기의 아동이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노래 부르기를 통해 아동들 간에 서로 소통을 하게 한다. 아동은 학교에서 교가나 애국가를 부를 때 다른 아동들의 소리를 듣게 되고, 음정과 박자가 맞는지 집중하게 되며, 다른 아동들과 소리를 맞춰 하나의 소리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아동은 동료 간의 일치감과 협동심을 기르게 되고, 넓게는 대인관계와 사회성을 이루게 된다(성정아, 2002). 노래 부르기를 통해 아동은 음악을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성공적 의사소통의 경험을 하게 된다(박현옥, 1999).

노래 부르기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한 직접적인 자기표현이다. 노래 부르기는 자신의 목소리로 현재의 느낌과 감정 등을 음악을 통해 솔직히 표현하고, 미적 체험을 경험하며, 음악적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음악경험에 대한 미적 체험은 아동에게 음악의 예술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거움에서 오는 만족감을 통해 긴장을 해소하여,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정성룡, 2000). 음악을 경험할 때마다 아동은 음악적 개념이 형성되는데, 이는 노래 속에서 박자를 느끼고, 악보를 보며 음표와 쉼표, 장단, 음정 관계 등을 노래로 표현한다. 노래의 흐름 속에서 강약을 표현하고, 빠르기를 구별하며, 노래 전체의 짜임을 이해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느끼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게 된다(유연이, 2000). 이러한 음악개념의 형성은 음악의 구조·원리에 대한 이해와 음악의 체험을 통해 청각·감각·인지 등의 발달로 창의적 사고와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노래 부르기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윤광희(2003)는 의사소통촉진 노래 부르기가 자폐아의 의사소통 능력 및 어휘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설명하였고, 조성민(2009)은 구조화된 노래 부르기가 자폐아동의 의사소통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증명하였다. 또 이숙영(2008)은 노래 부르기 활동이 경증치매노인에게 자기표현증진을 시키는데 촉매적인 작용함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이 노래 부르기 활동을 통해 소외감과 내면화된 정서문제로 인해 낮은 표현력과 낮은 자존감과 같은 자기 통제력의 결여를 경험하는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이 될 수 있다.

나. 노래 만들기

노래 심리치료의 한 기법인 노래 만들기는 언어적인 노래의 가사와 음악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아동의 감정표현과 개인의 통찰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진다(이영미, 2004). 감정표현은 자신의 내부에서 느끼는 생각과 감정이나 기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자신의 정서를 왜곡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감정표현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 발현하는데 자신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문제에 해결할 방법을 찾고 이를 상대방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실제상황에서 표현하는데 중요하다.(오은주, 2004). 감정표현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많이 열려있을 수록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도 증가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느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없고, 자기이해와 더 나아가서 타인을 이해하고, 관계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자신의 감정 밑에 깔려있는 개인적인 의미들을 이해하게 되면, 내부에서 생기는 감정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이것으로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게 된다(진선주, 2004).

그룹에서의 노래 만들기 활동은 아동이 자기표현에서 감정표현, 개인의 통찰력의 세계로 흥미롭게 인도할 수 있게 한다. 노래 만들기는 노래 가사와 함께 곡을 새로 만들어가는 비 구조화된 방법과 노래 가사 바꾸기의 구조화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노래 만들기에서 가사를 쓰고 작성한 가사에 따라 즉흥적인 선율을 만드는 활동은 창조적 자기표현으로 아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언어적으로 표현 하도록 향상 시키는 것으로, 이는 선율적인 연상을 통해 비언어적인 감정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는 내면에 형성되는 정서를 순화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노래 만들기를 통한 감정의 공유는 아동과 치료사의 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이영미, 2004). 선율 만들기에서는 아주 기초적으로 만들

어지는 작은 선율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감정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경험하는 감정은 선율의 진행, 리듬, 화음 등이 언어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내적감정표현을 더 극대화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이러한 창작경험을 통해 아동은 에너지의 분출과 함께 성취감의 경험으로 자신감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이 노래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이야기하는 작곡보다 편안하고 포괄적 의미와 창작활동으로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아동의 필요와 치료의 목적에 따라 적용하는데 의의가 있다(최미환, 2006).

노래 만들기에서 기존의 곡 가사를 바꾸는 활동은 언어로 직접표현하기 어려운 아동의 생각들을 스스로 통찰하고 노래 가사를 통해서 감정과 갈등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다. 아동 자신이 직접 만들어 가는 노래 만들기는 가사의 의미와 문장구조의 이해를 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로써 아동은 적절한 어휘선택을 통해 그룹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또 아동 자신의 고유한 생각, 감정, 행동들에 기초하여 진행하게 되므로 자신의 현재 모습을 탐색하게 한다.

노래 만들기는 아동에게 현재 자신의 감정을 규명하여 적절한 자기표현을 향상시키고, 그룹 내에 아동들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시키며, 타인의 지지와 수용을 경험하도록 하여 자신의 존재와 가치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노래 만들기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수정(2002)은 청소년들에게 영향력 있는 대중가요를 사용한 노래 심리치료를 통해 정서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력 향상의 효과를 증명하였고, 이영미(2004)는 게임중독 청소년의 불안 감소를 위해 대중가요를 이용한 노래 만들기 기법을 사용하여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였으며, 김은정(2007)도 노래 만들기가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자기표현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활동임을 입증하였다.

다. 악기연주

악기연주는 신체를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것으로 이는 음악치료에서 말하는 악기 연주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음악교육에서의 악기연주와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음악교육에서의 악기연주는 음악적 다이내믹 표현을 위한 연주의 기술적 능력과 감

정표현능력을 기본으로 하여 결과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음악치료에서의 악기연주는 음악에 반응하는 행동변화의 과정을 중시하고,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원인에 초점을 둔다. 음악치료에서의 악기연주는 잘하거나 잘못된 것을 따지지 않고 아동의 반응에 의미를 부여하며 긍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다(정원호, 2002). 이러한 악기연주를 통해 아동은 음악의 미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음악의 미적 경험이란 단지 아름다운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돕고, 감동을 체험함으로써 삶을 더 풍요롭게 이끌어 준다(송지연, 2002).

악기연주는 아동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을 표현하고 수용하는 장을 마련해주는 데, 이는 아동의 흥미를 자극하고 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여 감정표현을 하는 배출구의 기능을 한다(Boxil, 1985). 악기연주는 비언어적표현으로서 구체적 의미를 가진 음악적인 대화, 논쟁, 그리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다. 또한 단순한 손동작에서부터 높은 인지기술이 필요한 다양한 악기의 연주는 현재의 나에게 에너지를 집중하게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기표현을 하게 한다. 이러한 악기연주의 성공적인 경험은 아동에게 신체적 · 정서적으로 만족을 주어 성취감과 자존감을 얻게 된다.

악기연주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음악경험 중의 하나로서 이는 기존의 음악을 다양한 악기로 연주하는 재창조 활동과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여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창조적 활동 모두 포함한다. 악기연주는 특별한 음악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연주가 아니라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감각의 작업이다. 악기연주에는 소리 모방하기, 악기를 통한 리듬 및 선율 표현, 독주 혹은 합주, 즉흥 연주 등이 실시된다.

재창조 활동의 악기연주는 치료적 목적에 맞는 악기를 사용하여 기존의 곡을 새로운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구조화 된 접근을 중심으로 한다. 악기연주는 아동에게 정서 상태에 영향을 주고, 멜로디 악기와 리듬 악기 등 다양한 악기 균을 폭 넓게 사용하여 자신이 화성과 리듬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 시켜 인지능력의 증진을 돕는다. 악기연주는 신체의 근육운동, 감각, 지각, 협응 등의 활성화를 돕고, 음악 속의 리듬은 에너지원으로서 아동의 생리적 반응을 유도

하여 역동적 참여를 불러일으킨다.

한편 창조적 활동의 즉흥연주는 이미 작곡된 악보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하는 동안 즉흥적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즉흥연주는 창의적, 즉흥적, 그리고 순발력이 요구되는 작업으로서 창작과 연주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것이 이에 해당되며, 이는 유연성을 가지는 연주이다.

즉흥연주는 아동이 스스로 음악을 만들고 탐색하는 음악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한다. 즉흥연주는 아동을 지금 여기에(here and now)서 경험하도록 돕고, 아동의 무의식과 의식에 중재 역할을 하며, 아동의 내면을 반영하는 상징적 언어가 된다(Austin, 1996; 윤주향, 2010 재인용). 이러한 즉흥연주는 아동의 삶의 체험들을 음악의 상징성을 통해 감정적인 에너지를 신체적으로 해소하고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정신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룹에서의 즉흥연주는 그룹 원들 간에 서로 결합함으로써 마음의 호응과 공감이라는 치료적인 기능을 가진다. 그룹 다이내믹은 치료의 효과에 있어서 구조화된 언어활동보다 더 많은 의사소통 반응을 자극시키도록 돕고, 의사소통 반응행동을 증가시킨다(백경실, 2004).

이와 같이 악기연주 활동은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적절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의 음악을 경청하며,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음악극

아동을 위한 음악극은 동화, 동시의 내용 또는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극화하거나 노래극으로 구성하는 창작극이다(교육부, 1995). 음악극은 이야기, 노래, 몸짓언어로 이루어지는데, 말이 음악과 결합하고, 다시금 동작이 덧붙여지면서 극의 전달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음악극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작품 전체에서 음악이 주가 되면서 무용과 연극적 요소가 뒷받침되는 경우와 음악이 연극의 부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작품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다(박소영, 2004).

음악치료에서의 음악극은 치료적 내용과 목적을 내포한 이야기, 음악, 그리고 신

체표현 등을 결합시킨 극으로서 다양한 임상적 역할을 수행한다. 음악극에서의 임상적 역할은 아동이 음악과 이야기전개에 따른 음악연주에 참여함으로써 또래들과 음악적 상호교류와 이야기의 내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작용의 사회적 기술을 익히게 된다(손성민, 2010). 이러한 임상적 역할은 음악극을 완성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동하고 노력하며, 작업하여 그룹의 규칙을 준수해 내고 감정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치료적 효과를 의미한다(정현주, 김동민, 2005). 음악극은 이야기를 통해 아동에게 다양한 세상의 삶들을 폭넓게 알려주고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더 넓게 확장시켜주며, 내용과 순서를 이해하고, 인과관계에 맞게 재 기억하게 한다.

음악극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음악적 요소의 리듬은 가장 작은 구성요소의 박(pulse)이 규칙적으로 나열되는데, 이를 통해 안정성과 예측성을 느끼게 되므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정서를 제공하며, 리듬에 따라 긴장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화음은 높이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상태로서 불협화음과 협화음으로 나눌 수 있다. 불협화음이 자극이나 긴장, 초조를 나타내면 협화음은 기쁨, 희망의 느낌으로 해결을 하는데 이러한 음악적 특성이 감정을 지지하고 방해하기도 한다(곽희정, 2005). 선율은 여러 가지 높고 낮은 음과 길고 짧음의 시간적 배합으로서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선율과 화음은 조성을 결정하여 감정의 고조, 각성, 해결 등 적절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음악 요소들이 이야기와 만났을 때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사건 분위기와 등장인물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극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경험은 아동이 음악극을 통해 자기만족과 자기 성장으로 인한 자아개념 및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적 상호 교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감정표현의 방법을 학습시키는데 효과적이다(박소영, 2004). 음악극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혜란(2001)은 ‘음악극을 활용한 즉흥표현 신장 능력을 위한 연구’에서 초등학교 3, 4학년생을 위한 음악극을 만들어 즉흥적이며 창조적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음악극을 시도하여 소리탐색과 창작을 경험하였고, 이효숙(2001)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전체적 교육과정과 관련된 실제적인 유아음악극 활동을 실시한 결과 음악적 능력 및 신체표현 능력, 활동과정에서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긍정적 효과임을 밝혔다. 또 문삼숙(2004)은 유치원에서 음

악극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유의하게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음악극은 인간 삶의 총체적인 경험으로서 음악, 신체표현, 이야기로 구성되고, 이들 요소들 간의 긴밀한 내적 통합으로 이루어진 종합예술로서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음악극의 경험을 통해 아동은 자기 표현력을 키우고 그룹 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K 근로자 회관에서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 어머니의 자녀, 즉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중 초등학교 3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남아 2명, 여아 1명 총 3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에 앞서 아동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언어발달 검사결과 학년 및 연령으로 비교했을 때 총점 100점 중 60점 미만인 아동

둘째, 본 연구에 부모님이 동의 한 아동

셋째, 본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아동

<표 4> 대상아동들의 언어 발달 점수

구분	성별	생활 연령	언어 문제 해결 점수	구문 이해력 점수
A	남	10세 1개월	46	52
B	남	10세 4개월	48	55
C	여	10세 5개월	42	48

가. 대상자들의 배경 및 특성

1) 대상자A

대상자A의 생활연령은 10세 1개월 된 남자 아이로 외모 상 피부가 검은 편이고 또래 아동들과 유사한 발달을 보이고 있었다. 가족사항은 아버지와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 남동생이 1명이 있다. 평소 말이 없고, 자신의 의견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대상아동은 언어발달의 지체를 보이는데 읽기와 단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력이

낮았다. 자신이 싫고 좋은 것에 대한 적극적인 언어표현을 하지 않고, 기쁨이나 즐거움 슬픔 등 감정의 표현도 없었다. 평소 얼굴표정은 불만에 차있으며, 어둡고 우울해 보였다. 치료사의 질문과 지시에 불만이 섞인 말투와 반항적인 행동을 보였다. 음악활동에서 주위가 산만하고 행동에 충동적인 면이 두드러졌다. 노래 부르기 활동에서 산만한 행동으로 참여는 거의 하지 않고, 악기연주에만 흥미를 가졌다. 새로운 악기에 먼저 손이 가는 등 순서 기다리기와 집중 시간이 짧았다. 악기 선정에서 소리가 두드러지는 효과음 악기인 윈드차임, 레인스틱, 아고고 벨을 선호했다.

2) 대상자B

대상자B의 생활연령은 10살 4개월 된 남자 아이로 피부색이 많이 검은 편이라 외관상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가족 사항으로는 아버지와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없는 외아들이다. 대상아동은 언어 발달의 지체를 보이는데 단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력과 단어의 표현력이 부족하다. 기분이 좋을 때나 화가 날 때 감정의 기복이 언어표현에 묻어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낸다. 평소 얼굴에 표정이 없고 목소리가 작고 말 수가 조용한 성격이다. 치료사의 질문에 대체로 단답형의 대답을 했고, 대답하는데 한 참 머뭇거렸다. 음악활동에서 자신이 연주해야 할 순서에는 대체로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집중력이 좋았다. 그러나 음악활동에서 스스로 해보려는 자발적인 행동은 없었고 수동적이었다. 노래 부르기 활동에서 따라 하는 것에는 잘 참여를 하는 편이었으나 치료사의 가사에 대한 질문에 언어적, 감정적 표현이 서툴렀다. 악기연주 활동에는 흥미로워했고 특히 핸드북과 색깔 실로폰 연주하기를 좋아했다.

3) 대상자C

대상자C의 생활연령은 10세 5개월 된 여자 아이로 얼굴이 검은 편이고, 표정이 없고, 또래 아이들 보다 키가 작은 편이다. 가족 사항으로는 아버지와 필리핀출신의 어머니, 형제가 없는 외동딸이다. K 근로자회관에서 또래 아동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늘 혼자 다닌다. 대상아동은 언어 발달의 지체를 보이는데 읽기와 단어의 의미에 대한 표현력이 부족하다. 혼잣말을 자주해 상대방의 언어표현 시도를 자주 놓치고, 자발적인 언어표현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치료사와 얘기를 나누는데, 말 수가 없고, 묻는 말에 한 참 생각하고 느리게 말한다. 음악 활동에 있어 노래 부르기 활동 후 가사 토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로 할 때 한참을 생각하고 잘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하였다. 대답할 때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자신감이 없었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소극적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자주 모방하는 편이다. 노래 부르기와 가사 바꾸기에서 소극적인 참여를 보이는데 비해 악기 연주에서는 활동 자체 보다 악기소리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솔로 연주 보다 합주에 집중해서 잘 참여하였다. 특히 악기 선정에서는 색갈 실로폰과 핸드 벨을 선호했다.

2. 대상선정 검사 도구

언어발달 검사 중 배소영, 임선숙, 이지희(2000)가 개발 한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 도구와 배소영, 임선숙, 이지희, 장혜성(2004)이 개발 한 구문 이해력 검사도구가 이용되었다. 두 검사 도구의 결과 점수는 각각 총점이 100점으로 되어있다

3. 측정도구

1) 언어표현 측정

언어표현 검사 도구는 취학 전 아동(2~6세)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김영태, 성태제, 조운정(2002)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검사결과를 통하여 언어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언어발달에 지체가 있는지를 판별하고,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었다.

검사내용은 수용언어 영역과 표현언어 영역의 문항이 각각 45개씩, 총 90개 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사의 문항들이 언어의 의미론, 구문론, 화용론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언어의 수용·표현측면 뿐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영역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검사도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과 사후검사에 PRES(Preschool Receptive Expressive Language Scale)를 실시하여 대상아동의 언어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2) 감정표현 측정

감정표현의 측정도구는 자기표현 평정척도로 Rakos 와 Schroeder(1979)의 주장 행동 척도를 우리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 개발한 변창진, 김성희(1980)의 자기표현 행동척도이며 이 척도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9문항은 말한 내용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고, 7문항은 음성에 어느 정도 자기표현 요소가 나타나는지를 평가한 문항이며, 나머지 4문항은 말할 때의 표정이나 손발의 움직임 등과 같은 비언어적 자기표현 요소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5점 척도를 적용시켜 항상 자기표현을 할 수 있으면 5점으로 하고, 자기표현을 하는 빈도에 따라 4점, 3점, 2점, 1점을 주고 평가기준으로 삼았는데, 개인이 얻은 점수의 범위는 20~100점이다.

4. 연구 설계 및 절차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적·감정적 자기표현력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아동들에게 언어표현 척도와 감정표현 척도를 사전과 사후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2) 연구 장소 및 기간

본 연구의 장소는 대구에 소재한 K 근로자회관의 교실에서 주1회씩 총 12회기를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은 연구 대상자 선정과 검사지 측정 및 분석을 포함하여 2010년 2월 7일부터 2010년 5월 3일까지 총 3개월간 시행되었다. 2010년 2월 14일부터 2010년 5월3일까지 총 12회기 1회기에 40분씩 세션이 진행되었고, 사후 검사는 12회기 끝난 2010년 5월6일에 시행되었다.

3) 사전 검사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적용하기 1주일 전 취학 전 아동의 수용·표현언어 발달척도 (PRES)와 감정표현 관찰척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사후 검사

본 연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모두 동일한 관찰방법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5. 연구 자료 분석

대상아동의 자기표현 행동을 연구자 외 보조 교사1명으로 사전과 사후를 구분하여 측정한 후 평가하였다. 언어표현 척도는 김영태, 성태제, 조운정(2002)이 개발한 것으로 사용하였고, 아동들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의 연령을 비교, 분석하여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감정표현 척도는 Rakos 와 Schroeder(1979)의 주장 행동 척도를 변창진과 김성희(1980)가 수정 보완한 것으로 검사지의 점수를 비교, 분석하여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6. 프로그램 구성 및 활동 내용.

<표 5> 프로그램 구성

구 성	내 용
반기는 노래	노래하며 반기는 인사하기
프로그램 활동	음악치료 활동하기
피드백 및 소감 나누기	세션 중 자신의 느낌과 경험한 것을 나누기
헤어지는 노래	노래를 부르며 정리하기

음악치료활동 프로그램은 치료사와 아동들의 라포 형성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언어적·감정적 자기표현력 및 타인과의 교류를 목표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의 노래 선곡은 프로그램 목표와의 적합도와 아동들의 선호도를 고려해서 이루어졌다.

<표 6> 음악치료 활동 프로그램

단 계	회 기	주제	목표	활동 내용	치료적 근거
초 기	1	자기소개	사전 검사 Rapport 형성	· 반기는 노래와 헤어짐의 노래 배우기 · 말 리듬으로 자신의 이름과 별명 등을 소개하기	1말리듬의 사용은 집중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높인다. 2말리듬의 다양한 사물적용은 언어표현력과 순발력을 증진시킨다.
	2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자 아 인 식 및 자기표현력 증진	· 자신이 좋아 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 얘기 나누기 예)음식, 연예인 들 · 엘가 ‘사랑의 인사’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노래하기	1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의 토의는 자기이해와 언어표현을 증진시킨다. 2‘사랑의인사’ 멜로디의 가사넣어 노래부르는 자기표현과 자존감을 증진시킨다

단 계	회 기	주제	목표	활동 내용	치료적 근거
	3	나의 꿈	자존감 및 자기표현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은 직업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악기로 표현하기 · ‘거위의 꿈’을 부르고 마음에 드는 가사에 대해 얘기 나누기 	1‘거위의꿈’노래에 숫자 악보연주는 집중력을 높이는 동시에 그룹의 상호작용에 도움을 준다. 2노래를 배우고 가사를 토의는 언어표현력과 자존감 증진시킨다.
중 기	4	참 좋은 말 사랑해요	자기표현력 및 상호교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좋은 말’ 노래를 다 함께 부르기 · ‘참 좋은 말’에 대해 얘기를 나눈 후 가사 바꾸어 노래 부르기 	1‘참 좋은 말’ 노래의 가사토의는 언어표현력과 상호작용을 증진시킨다. 2봄 셰이커를 이용한 활동은 대상자가 리더가 되어 연주를 주도하는 것은 집중력을 높이고 그룹의 상호작용과 자존감을 증진시킨다.
	5	나는 주인공	자기표현력 및 집중력, 그룹응집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거울’노래를 배우고 짝을 지어 주인공과 거울을 만들어 다양한 표정과 행동을 따라하기 · 캐논 변주곡을 핸드 벨로 연주하기 	1거울활동은 타인의 표정을 따라함은 집중력을 높이고 여러 감정의 표정을 지어봄으로써 감정표현력을 증진시킨다. 2‘캐논변주곡’의 색깔악보에 핸드 벨 연주는 집중력 증진과 그룹의 일체감을 증진시킨다.
	6	아름다운 세상	타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상호교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세상’ 노래 부르기 · 노래가사에 대해 얘기를 나눈 후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즉흥으로 악기연주하기 	1‘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표현의 즉흥연주는 창의력과 순발력, 자존감을 증진시킨다. 2‘아름다운 세상’ 노래의 합주는 대상자가 그룹상호작용과음악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한다.

단 계	회 기	주 제	목 표	활 동 내 용	치 료 적 근 거
	7	내맘을 악기로 연주해보자	자기표현력 및 상호교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마음에 드는 악기를 선택 후 자신의 마음을 즉흥적으로 연주하기 · 리듬을 카드를 보고 자신이 마음에 	1'내마음' 노래의 가사토의는 여러 가지 감정을 인식하고 언어적, 감정적 표현을 증진시킨다. 2마음에 대한 악기연주는 대상자 내면에 숨겨진 감정의 비언어적표현과 상호작용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한다.
	8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자기표현력 및 자아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노래를 함께 부른 후 여러 가지 표정을 지어보고 얘기 나누기 · 붐 웨이커를 이용해 연주하기 	1'얼굴찌푸리지말아요' 노래의 율동은 움직임을 통해 가라앉은 에너지를 활성화 시키고 즐거움을 준다. 2'얼굴찌푸리지말아요' 노래의 가사토의를 통해 자아인식과 자기 표현력을 증진시킨다.
중 결	9	나의 친구들	자존감 및 상호교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두까지 인형' 음악에 맞춰 신체 모방 활동하기 · 자신의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 대해 이름과 장점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 	1'호두까지 인형' 음악의 율동은 대상자에게 창의성과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대 근육을 활성화시킨다. 2'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노래의 가사토의에서 그룹원간의 상호작용과 언어표현력을 증진시킨다.
	10	내가 가져야 할 마음, 내가 버려야 할 마음	자기표현력 및 자존감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법의 성' 노래를 부르고 성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떤지 서로 얘기 나누기 · 핸드 벨을 연주하며 노래 부르기 	1가져야 할 맘, 버려야 할 맘에 대한 얘이나누기는 자아인식과 자기표현을 통해 자존감을 증진시킨다. 2리듬 다이내믹 악기연주는 생리적 반응을 촉진시켜 음악의 역동성을 경험하게 하고 소 근육을 강화시킨다.

단 계	회 기	주제	목표	활동 내용	치료적 근거
	11	마법의 성	자존감 및 집중력 증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법의 성’ 노래를 부르고 성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떤지 서로 얘기 나누기 · 핸드 벨을 연주하며 노래 부르기 	<p>1‘마법의 성’노래의 가사 토의는 언어표현력 증진과 그룹상호작용을 통해 자존감을 증진시킨다.</p> <p>2색깔실로폰 연주는 소근육과 집중력을 강화시킨다.</p>
	12	음악극	상 호 교 류 및 자존감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극 ‘강아지 똥’ 연주하기 · 세션을 마치면서 소감 나누기 	<p>1음악극 활동은 그룹 원간의 상호작용으로 자존감과 성취감으로 사회성을 증진시킨다.</p> <p>2음악극 활동은 대상자에게 연주의 즐거움으로 인해 생리적 반응을 촉진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p>

IV 결과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 3명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적 · 감정적 자기표현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그들에게 12주 동안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사전·사후를 측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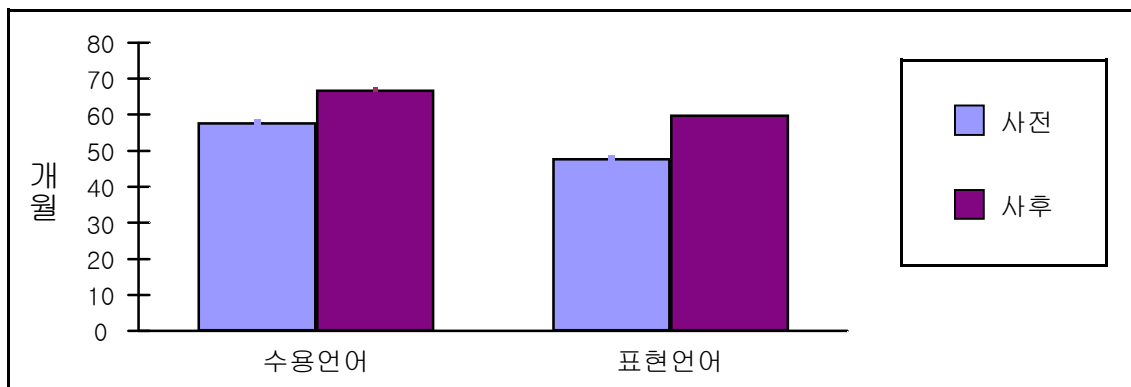
1. 언어적 자기표현력 증진에 대한 결과

언어적 자기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김영태, 성태제, 조운정 (2002)이 개발한 수용·표현 언어발달 척도(PRES)를 사용하여 아동들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의 차이를 비교 분석했다. 구체적 검사결과는 <표 7>과 같다.

7> 수용·표현 언어력 사전·사후 검사 결과 (단위: 개월)

구분	수용 언어력 검사		표현 언어력 검사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아동 A	58	67	48	60
아동 B	54	58	45	52
아동 C	48	52	44	53

<그림2> 대상자 A 수용·표현 언어력 사전과 사후 검사 결과



<그림 2>는 대상자A의 언어표현력 사전과 사후 검사결과이다. 사전 검사에서는 수용언어가 58개월, 표현언어는 48개월로 수용언어에 비하여 표현언어의 연령이 지체됨을 보였다. 음악치료 후 검사의 결과를 보면 대상자A의 수용언어는 67개월, 표현언어는 60개월로 사전 검사에 비해서 수용언어는 9개월, 표현언어는 12개월로 음악치료 후 언어 발달이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수용언어에서 어려운 낱말의 이해와 은유적 표현의 이해가 낮은 편이었다. 예를 들어 ‘논쟁하다, 소곤거리다’의 낱말의 이해가 어려워 연구자의 설명이 필요했다. 표현언어에서 낱말의 회상과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대상아동 중 한사람이 동물원에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후 대상아동 A의 순서에 반복해서 같은 종류의 동물을 말했다. 대상아동들은 회기가 늘어날 수록 표현언어에서 사건의 전개에 대한 설명과 문제해결의 표현능력이 증진되었고, 매 회기 마다 노래가사의 토의와 가사 만들기 활동에서의 자발적인 참여가 증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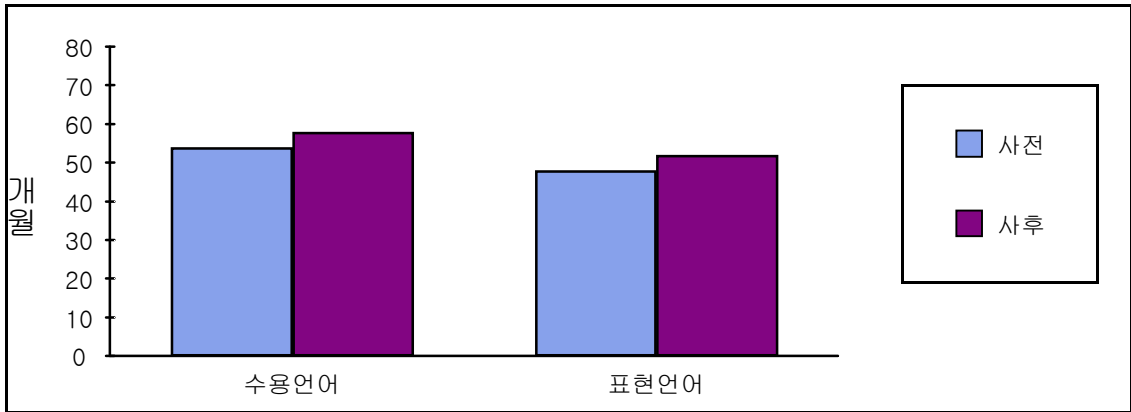
대상자A는 음악활동 초기(1~3회기)에서 우울하고 불만에 찬 표정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연구자가 대상아동들에게 행한 자신의 별명에 대해 물음 등에 대상자A는 머뭇거리며 ‘없어요’ 또는 다른 질문에 거의 ‘아니요’하며 고래를 옆으로 저었고, 가사를 보며 노래 부르는 활동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등 산만한 행동을 했다. 활동 중기(4~8회기)에서 ‘참 좋은 말’ 노래를 함께 부른 후 대상 아동들과의 어떤 말이 ‘좋은 말’인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대상자 A는 ‘잘 했어요’ ‘사랑해요’라고 했는데, 노래 가사를 그대로 대답해서 연구자가 노래 가사 외의 말을 생각해볼 것을 권유하며 다시 기회를 주었더니 ‘최고야’라고 바꿔 말했다. 자신이 생각한 단어로 가사를 바꾼 노래 부르기는 쑥스러운지 바꾼 가사 부분에서만 작은 목소리의 말하듯이 표현했다. 활동이 종결(9~12회기)에 이르자 아동A는 노래 부르기 활동에서 산만하고 소극적이던 행동에서 벗어나 자신이 아는 노래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가사를 보며 노래를 부르는 횟수가 증가 되었다. 가사 바꾸기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횟수가 역시 증가하고 단어 선택에 있어 다양해졌다. 자신이 ‘가져야 될 마음’과 ‘버려야 될 마음’에 대한 얘기 나누기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 했고, ‘버려야 할 마음’은 ‘친구와 싸우지 않는 것’이라 했다. 음악극에서 ‘마음 아파요’ 노래 배우기에서는 활동 초기 때와는 다르게 집중해서 노래를 불렀고, 음악극이 끝나고 소감을 나누기에서는 ‘재미있었어요’ ‘기분이 좋

아졌어요'라고 표현 했다.

<그림 3>은 대상자B의 언어표현력의 사전과 사후 검사결과이다. 사전 검사에서는 수용 언어가 54개월, 표현언어는 45개월로 표현언어 연령이 지체됨을 보였다. 음악치료 후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대상자B의 수용언어는 58개월, 표현언어는 50개월로 사전 검사에 비해 수용언어는 4개월, 표현언어는 7개월의 향상을 보였다. 수용언어에서 사물의 설명과 은유적 표현에 대한 이해가 낮았고 방향에 대한 표현에서 '여기, 저기'로 제한 적이었다. 표현언어에서 '큰, 많이'와 같은 부사와 형용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못했다. 회기가 지날 수 록 수용언어에서의 방향에 대한 표현으로 '옆, 위로, 아래'의 사용이 증가 되었고, 표현언어에서 신체 상태나 감정표현에 대한 어휘의 사용이 증가 되었다. 예를 들어 '피곤하다, 졸리다, 신난다, 즐겁다' 등의 표현이 증가되었다.

대상자B는 음악활동 초기(1~3회기)에서는 말이 없는 편으로 조용히 자리에 앉아 활동에 참여했다. '나의 꿈'에 대해 얘기 나누기에서 미래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곰곰이 생각하더니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그냥요"라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자신 있게 표현하지 못하고 짧게 대답했다. 음악활동 초기에서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체적으로 수동적인 단답형 대답을 했다. 집중력은 좋은 편이어서 노래 부르거나 연주활동에서 연구자의 지시를 잘 따라서 수행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아름다운 세상'노래를 부른 후 실시한 가사토의 활동 중 '아름다운 세상'이란 어떤 세상을 말하는 지 언어로 표현하기에서 아동B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기쁜 것'과 '행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 초기(1~3회기)에서는 연구자의 질문에 부끄러워하며 행동이 소극적이었는데, 활동 중기에 접어들면서 노래 부르기와 가사토의 활동에 익숙해지면서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횟수가 증가 되었고, 다양한 단어의 사용 역시 증가되었다. '내 마음을 악기로 표현하기'에서 자신의 마음을 악기 연주 후 각자의 느낌을 말로 표현 하는데 '친구와 놀고 싶은 마음' '화난 마음'이라 말했다. '화난 마음'의 이유를 물어 보니 "학원가서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가 가라고 해서 화가 나요"라고 말했다. 음악극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흙더미 연주에서 치료사의 지시를 기다리며 집중해서 연주를 하였고 소감을 묻자 '재미있었다' 강아지 똥 같이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말했다.

<그림 3> 대상자B 수용·표현 언어력 사전과 사후 검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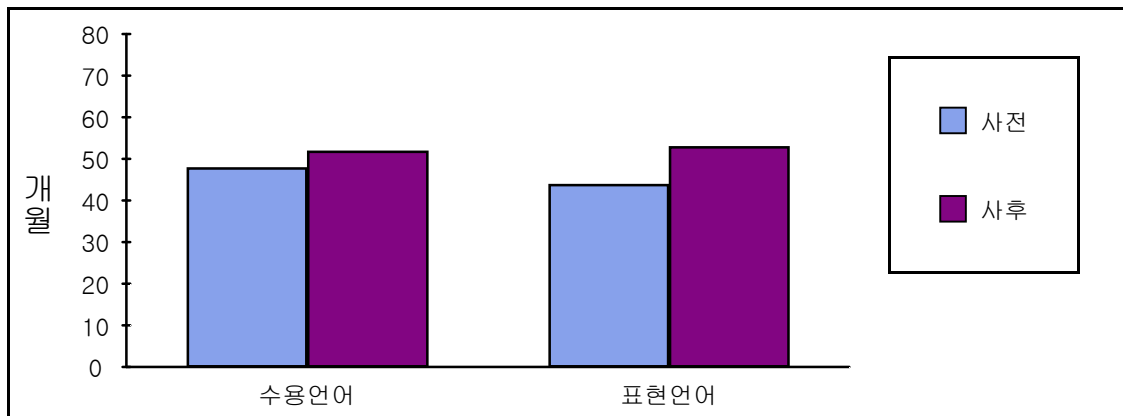


<그림 4>는 대상자C의 언어표현력의 사전과 사후 검사결과이다. 사전 검사에서는 수용언어가 48개월, 표현언어 연령은 44개월로 두 언어의 연령이 큰 차이는 없게 나타났다. 음악치료 후 검사결과를 보면 대상자C의 수용언어는 52개월, 표현언어는 53개월로, 수용 언어의 연령은 4개월로 조금 증진되었으나 표현언어의 연령은 9개월로 수용언어에 비해 표현언어가 크게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용언어에서 수의 개념과 단어의 은유적 표현, 이해력이 낮았다. 예를 들어 ‘고사리 같은 손’의 표현에서 고사리가 무엇인지 연구자의 설명이 필요했다. 표현언어에서 신체 상태와 감정표현의 어휘의 표현의 횟수가 낮았는데 회기가 지날수록 ‘힘들다, 심심하다, 하고 싶다. 신난다’ 등 다양한 단어의 사용과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증가되었다.

대상자C는 음악활동 초기(1~3회기)에서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이었다. 연구자와의 눈 마주침에 어색해 했다. ‘나의 꿈’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대상자C는 ‘생각이 안 난다’며 한참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연구자가 대상자C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다시 묻자 ‘학교 선생님’이라고 대답했다. 대상자C는 연구자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자신감 없이, 의사표현에 소극적이었다. 악기 선정에 있어 자신이 원하는 악기를 자신 있게 표현하지 못하고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선택했다. 활동중기(4~8회기)에 접어들면서 노래 부른 후 가사토의 활동에서 치료사의 물음에 친구들의 대답을 따라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잦았다. ‘참 좋은 말’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다른 대상자의 말을 따라하다가 치료사가 천천히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것 중에서 말해보자고 했더니 ‘고마워요’와 ‘힘내요’라고 말했다. 대상자C는 다른 아동들에 비해 단어선정과 단어의 이해력이 낮은 편이었다. 매 세션 마다 연구자는 대상자C에게 천천히 대답할 수 있는 기회와 가사토의 중 단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부연 설명을 해주고 긍정적 강화를 해줌으로써 자발적으로 언어로 표현하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었다. 활동이 종결(9~12회기)에 이르자 활동시간 전에 미리 와서 연구자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먼저 인사를 건네고 오늘 활동은 무엇인지 묻고, 또 새로운 악기를 만지며 활동시간에 “이것을 하고 싶어요”라고 미리 얘기했다. 음악극 ‘강아지 똥’에서 ‘민들레’ 역을 맡았는데 악기연주 부분에 집중해서 연구자의 지시에 집중해서 잘 따라 주었다. 활동 후 소감에서 ‘또 하고 싶다’ ‘재미있다’라고 했고, 노래 부르는 활동에서는 초기단계와 다르게 적극적이었다.

<그림 4> 대상자C 수용·표현 언어력 사전과 사후 검사 결과



2. 감정적 자기 표현력 증진에 대한 결과

본 연구는 12주 동안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감정적 자기 표현력 증진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표현 평정척도인 Rakos 와 Schroeder(1979)의 주장행동척도를 우리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 개발한 변창진, 김성희(1980)가 수정, 보완 한 것을 사용하여 사전·사후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검사결과는 아래

와 같다.

1) 음악치료에서의 대상아동들의 감정표현 평정척도 총점의 사전·사후 비교

본 연구에서 음악치료에 참여한 아동들에게 실시한 감정표현 평정관찰척도 사전·사후 점수결과는 <표 8>과 같다. 대상아동들의 감정표현 평정척도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사전 검사에서 대상자A가 52점으로 제일 높은 점수였고, B는 40점으로 중간 점수, C는 제일 낮은 점수였다. 음악치료 후 아동들의 감정표현 평정척도 총점을 보면, 대상자A는 4점 증진되었고, 대상자B와 대상자C는 10점 이상 크게 증진되었다.

<표 8> 음악치료에서 감정표현평정척도의 사전·사후 총점 점수 결과

구분	사전	사후
대상자A	52	56
대상자B	40	51
대상자C	34	43

2) 음악치료에서 대상아동들의 감정표현평정척도의 하위 요인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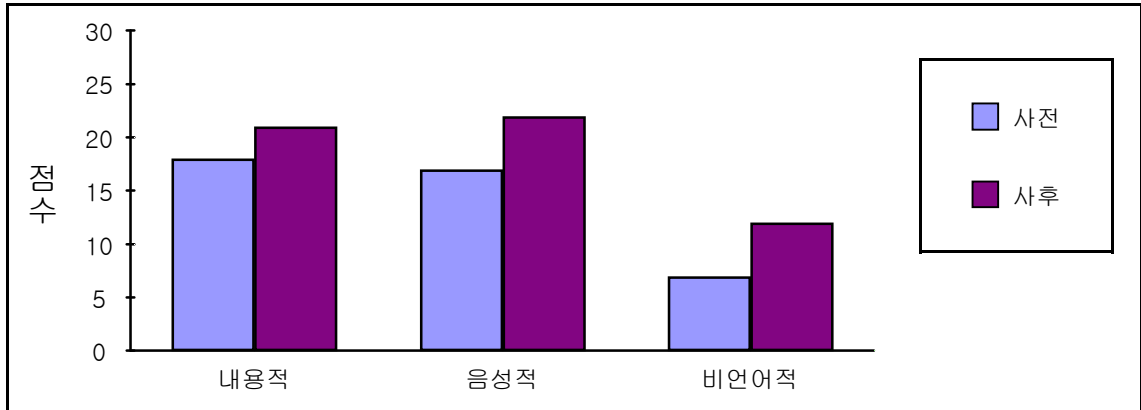
< 표 9> 감정표현척도의 하위 요인별 사전과 사후 결과

구분	대상자A		대상자B		대상자C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내용적	18	21	17	21	15	18
음성적	17	22	15	18	14	16
비언어적	7	12	8	13	5	9

음악치료에서 감정표현 평정척도의 하위요인을 내용적, 음성적, 비언어적 요소로 각각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5>는 대상자A의 감정표현척도 하위별 요인의 검사결과이다. 대상자A의 내용적 요소는 사전 18점에서 사후 21점, 음성적 요소는 17점에서 22점, 비언어적 요소는 7점에서 12점으로 증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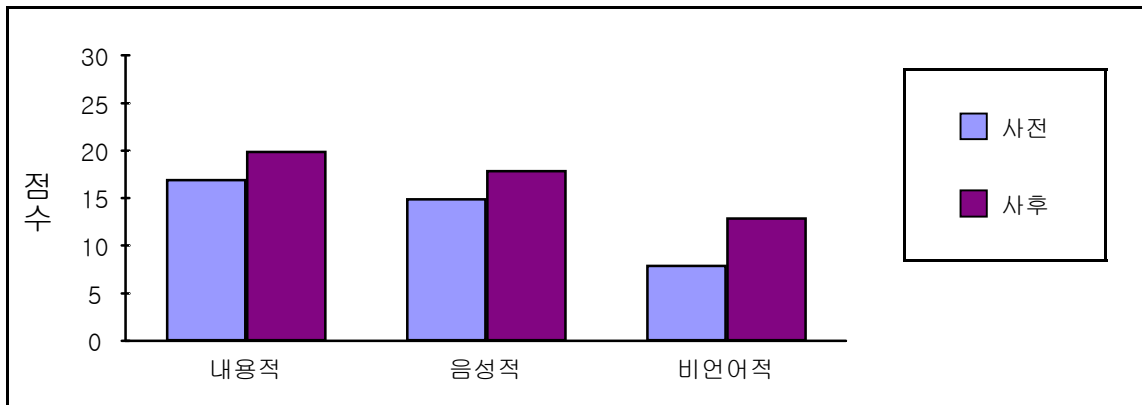
<그림 5> 대상자A 감정표현척도의 하위 요인별 사전과 사후 결과



대상자A는 음악활동 초기(1~3회기)에서 반기는 노래와 헤어짐의 노래 배우기에서 치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치료사가 악기에 대한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치료사의 지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 악기를 만지는 등 산만한 행동이 잦았다. 활동 중기단계에서는 악기연주를 통해 아동들의 감정을 표현하게 했다. 대상자A는 다양한 악기들의 음색과 모양에 흥미를 가졌고, 핸드 북 연주에서 치료사의 리듬을 모방함에 있어 자신의 악기로 집중하며 성공적으로 수행 했다. 다른 아동의 리듬을 모방한 후 자신이 원하는 연주를 하는 즉흥연주의 활동에서는 북 소리를 크고, 빠르게 내었다. 연주의 소감을 묻자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라고 표현했다. 노래 활동에 비해서 악기 연주에서는 대상자A가 집중을 잘 하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그 수행이 점차 성공적이었다. 얼굴 표정을 모방하는 활동에서 자신이 거울이 되어 상대방의 표정을 모방하는데 처음에는 쑥스러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재미있는 표정을 지으며 즐거워했다. 활동이 종결(9~12회기)에 이르자 대상자A는 음악활동 전에 일찍 와서 치료사에게 말을 건네고 친근하게 행동했다. 평소에 어두웠던 표정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고, 근로자 회관의 아동 담당 교사가 대상자A의 행동과 표정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얘기했다. ‘마법의 성’ 노래에 핸드 벨 연주 활동에서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순서에 성공적으로 연주를 수행과 함께 악기를 정리 했다.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아동A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들어주고, 표현하도록 기다려주고, 음악활동의 성공적 수행에 대해 긍정적 강화를 주었던 것이 대상자A의 얼굴표정이나 행동에 변화를 주었

다. 이러한 음악활동의 성공적 수행들이 대상자A에게 계속적으로 감정표현을 시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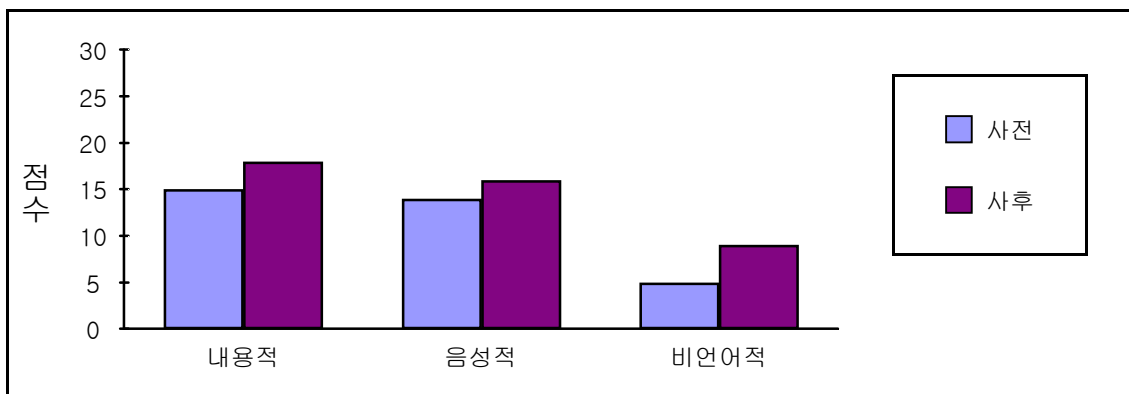
그림 6> 대상자B 감정표현척도의 하위 요인별 사전과 사후 결과



<그림 6>은 대상자B의 감정표현척도의 하위별 요인의 검사결과이다. 내용적 요소는 사전 17점에서 사후 20점, 음성적 요소는 15점에서 18점, 비언어적 요소는 8점에서 13점으로 증가되었다. 대상자B는 음악활동 초기(1~3회기)에서는 주위를 의식해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순서에 연주하는데 어려워했다. 치료사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 묻자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컴퓨터 게임’이라고 말했고, 말과 행동이 수동적이었다. 활동 중기(4~8회기)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거울 앞에서 얼굴표정 짓는 것을 부끄러워해 수행이 잘 이뤄지지 않아 치료사의 표정을 따라 재미있는 표정을 지어보게 했다.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 졌는지 혼자서도 여러 가지 장난스런 표정을 지어보였다. 붐 셰이커를 이용한 연주 활동에서 악기 소리에 흥미를 가졌고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연주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즉흥적으로 아동의 지시에 따라 연주하는 활동에서 아동B가 지시자가 되었는데, 자신의 지시에 아동들이 연주하는 것에 즐거워했고 뿌듯해 했다. 치료사가 소감을 묻자 ‘기분이 좋고 재미있다’라고 표현 했다. 활동 종결(9~12회기)에 이르러 ‘마법의 성’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핸드 벨 연주를 했다. 초기 활동에서 아동B는 거의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음에 비해 종결에 이르자 노래 부르기에서는 평소 보다 조금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집중력은

다른 대상 아동들 보다 좋은 편이라 연주하는데 어려움 없이 수행이 성공적이었다. “마법의 성에서 자신이 산다면 기분이 어떨까?”,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는데 “헤리포터 처럼 마음대로 다니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왕자가 되는 기분이예요” 라고 신나서 말했다.

<그림 7> 대상자C 감정표현척도의 하위 요인별 사전과 사후 결과



<그림 7>은 대상자C의 감정표현척도의 하위별 요인의 검사결과이다. 내용적 요소는 15점에서 18점, 음성적 요소는 14점에서 16점, 비언어적 요소는 5점에서 9점으로 증가되었다. 대상자C는 음악활동 초기(1~3회기) ‘내가 좋아 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얘기 나누기에서 치료사가 듣지 못할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시 치료사가 물으면 대답을 하지 않고 머뭇거렸다. 악기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 있게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한참 머뭇거렸다. 다른 아동을 의식해서인지 자존감과 자신감이 낮았다. 대상자C에 대해서 치료사는 활동 중에 좀 더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기다려 주었다. 악기연주에서 치료사의 핸드 북 리듬을 듣고 따라 하기에서 천천히 연주하는 리듬에는 수행이 성공적이었지만 빠른 리듬과 복잡한 리듬은 따라 연주하지 못했다.

활동 중기(4~8회기) ‘내 마음을 악기로 표현 해보기’에서 악기는 컬러 실로폰을 선택한 후 멜로디 연주를 자유롭게 했다. 치료사가 어떤 마음인지 소감을 묻자 ‘혼자 있는 마음’을 표현 했다고 했고, 주위에 친구가 없어 혼자 잘 다닌다고 했고, 그래서 힘들다고 했다. ‘호두까기 인형’ 음악에 맞춰 행한 신체 모방 활동에서 다른 아동들이나

치료사의 행동에 대한 모방은 성공적이었으나 자신의 동작을 만들어 보는 활동에서는 어색해하며, 머뭇거리다가 ‘박수치기’로 음악에 맞춰 동작을 표현했다. 활동이 종결(9~12회기)에 이르자 ‘마법의 성’ 핸드 벨 연주에서 치료사의 지시에 집중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치료사의 칭찬에 기분 좋아 했다. 음악극 연주에서도 자신이 맡은 ‘민들레’ 역할 연주에서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연주 후 소감에서 ‘강아지 똥’ 같이 소중한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말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 3명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시행하여 언어적 · 감정적 자기표현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대구의 K근로자 회관에서 실시하였다. 음악치료는 노래 부르기, 노래 만들기, 악기연주, 음악극 활동을 중심으로 주 1회 40분씩 12회기 동안 언어표현과 감정표현으로 나누어 사전 · 사후 검사지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아동들은 수용언어 비해 표현언어가 현저하게 부족하고, 자신이 원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언어표현이 낮았으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지와 자발성이 부족해 타인의 정보 제시나 강력한 요구에만 언어와 감정의 표현을 하는 어려움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와 감정의 표현을 증진시켜 또래 관계에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시도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음악치료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언어적 자기표현력 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를 사전 · 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A의 수용언어는 67개월, 표현언어는 60개월로 사전 검사에 비해서 수용언어는 9개월, 표현언어 역시 12개월로 언어발달이 월등히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B의 사후 수용언어는 58개월, 표현언어는 52개월로 수용언어의 증진은 큰 차이가 없으나, 표현언어의 연령이 큰 폭으로 증진되었다. 대상자C의 사후 수용언어는 52개월, 표현언어는 53개월로 수용언어의 연령은 조금 증진되었으나, 표현언어의 연령은 비교적 크게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대상자A가 가장 높은 언어적 자기표현의 증진을 가져왔는데, 다른 대상아동에 비해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고, 가사토의 후 가사 바꾸기 활동을 좋아했다. 노래를 부르며 가사 바꾸기에 흥미를 가진 대상자C도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식과 표현을 음악치료의 구조적 훈련을 통해 언어적 표현력의 증진을 가져왔으며, 대상자B 역시 자발적인 참여의 증가로 언어적 표현력이 증진 되었다. 특히 노래와 관련된 활동은 언어와 유사점이 많은데 대상아동들에게 동기 부여와 자발적 참여의 유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음악치료 초기에 대상아동들은 노래 부르기와 가사토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머뭇거리며 힘들어 했다. 매회기 음악치료에서 가사 토의 후 가사 바꾸기의 반복적 훈련과 노래 부르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대상아동들은 조금씩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여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우남, 김수진(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아동의 수용 및 표현언어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적용이 대상아동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연령의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수준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반복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적용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감정적 자기 표현력 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 감정적 자기표현 평정척도의 결과를 보면, 대상자A가 52점으로 제일 높은 점수였고, B는 40점으로 중간점수, C는 34점으로 제일 낮은 점수였다. 음악치료 후 대상아동들의 자기표현 평정척도 총점을 보면, 대상자A는 56점, 대상자B는 51점, 대상자C는 43점으로 대상자B의 감정표현 평정척도 점수는 4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대상아동들은 ‘구조적 음악’과 ‘비구조적 음악’의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감정을 조금씩 발견하고, 표현하며, 소통하였다. 특히 대상자B는 사후 감정표현의 평점이 제일 높는데, 이는 감정표현의 기회와 기술 부족으로 인한 소극적인 태도가 노래의 가사 바꾸기와 다양한 악기연주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음악치료 대상아동들은 초기 악기연주의 감정표현 활동에서 핸드 북 연주 후 ‘스트레스가 풀리고 속이 시원하다’고 말하였다. 또 악기연주에서 합주의 경험은 대상아동들의 일치, 집중력과 함께 즐거움을 주었다. 처음 합주에서 대상아동들은 타인과 맞춰 연주하는 것에 서툴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인의 연주를 들으면서 박자와 쉽표에도 신경을 쓰며 연주했다. 음악치료가 중반에 접어들자 자신의 감정을 악기연주로 표현하는 활동에서 평소에 말없고 표현하지 않던 대상자A는 ‘슬프다’ ‘화가 난다’ 표현하였고, 대상자C 역시 음악치료 초기에는 말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다가 음악치료 중기로 들어서자 악기선택에 있어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의사표현과 자신의 느낌을 작은 소리로 표현하는 횟수가 잦아졌다. 활동의 종결에서 대상아동들은 자신들의 사소한 느낌과 감정에 대해 얘기하는 횟수가 증가 되었고, 즉흥연주에서 표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으며, 음악극의 공동 작업을 통해 그룹의

일체감과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대상아동 자신들의 감정을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음악치료가 대상아동들에게 자기표현의 배출구 역할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음악치료 활동이 학습장애 학생의 자기표현,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는 최윤미(2008)의 연구와 일치하며, 천미온(2003)이 연구한 음악치료가 학습장애아동들의 자기표현, 사회성 및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적 · 감정적 자기 표현력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음악치료 안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표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좀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체크리스트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언어표현 변화의 체크리스트는 문항수가 많아 아동들이 검사과정에서 집중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적 · 감정적 자기 표현력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2회기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치료효과에 대한 지속성을 알아보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단기 음악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 음악치료와 지속적인 추후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참여한 대상자수가 작아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자 자신이 직접 치료에 개입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의 의도성과 주관적 해석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넷째, 음악치료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선정을 다양한 나라의 민요나 동요를 적용해보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한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부모 중 한쪽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다양한 음악의 스타일의 적용을 통해 다른 문화의 이해와 즐거움을 얻음으로써 창의성과 정서적인 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음악치료가 언어적 · 감정적 자기 표현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 증대될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위한 연구에 본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성미(2003).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노래 활동 사례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주연(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팀 리더쉽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연구.
- 교육부(1995).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 자료집. 서울: 교육부.
- 곽희정(2005). 놀이극 중심의 음악치료 활동 연수를 통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변화.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구아민(2009). 섬유의 확대된 이미지를 통한 감정표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갑성(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
- 김동교(2000). 동화를 통한 동작 표현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민(2009). 동화를 활용한 후속 이야기 짓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구성능 및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성희, 변창진(1980). 자기표현주장척도.
- 김진애, 최애나(2007). 음악치료가 학습장애아동의 자기표현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3(2), 25-28.
- 김은정(2007). 결손가정 청소년의 자기표현을 위한 노래 만들기 활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인자(2000). 한 부모 가정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향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태, 성태제, 이윤정(2003).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 (Pres). 서울: 장애종합복지관.
- 김영희(2006).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중학생의 자기 표현력과 사회성에 미치는효

- 과. 발달장애학회지, 10(1), 1-11.
- 김혜란(2005). 동화를 통한 동작활동이 유아의 언어 및 그리기 표상 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주(2008). 인간의 감정표현을 시각화한 장신구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김태련(1994). 발달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문삼숙(2004). 유아 음악극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소영(2004). 동화를 이용한 비구조적 음악극이 유아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박수정(2002). 정서장애 청소년의 자기표현력 향상을 위한 음악 치료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수정(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 박지은(2002).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음악요소에 대한 선호도와 공격성간의 관련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박혜진(2008). 음악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표현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현욱(2000). 음악치료의 구조와 치료 실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 .
- 백경실(2004). 사이코드라마적인 음악치료가 부부의 의사소통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서 혁(2007). 다문화가정현황 및 한국어교육지원방안인간연구, 1(12), 1-24.
- 손성민(2010). 뇌병변 장애 아동의 자기표현능력을 위한 음악치료활동의 비교연구; 악기연주, 노래 만들기, 음악치료 놀이극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성정아(2002). 노래 부르기 지도유형에 따른 장애유아의 반응에 관한 연구. 석사

- 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송지연(2002). 음악치료활동이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송성민(2006). 자폐성 아동의 노래 만들기를 통한 자발적 언어표현 증진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치료전공.
- 송성자(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 문제에 대한 연구: 의사소통 가족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송전대학교 대학원.
- 신현균(2002). 청소년의 학업부담과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 불능증 및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21(1).
- 이경숙(1999). 집단음악활동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감정표현과 정신병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 대학교 특수대학원.
- 이규정(2002). 정신질환자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관계형성에 대한 음악의 효과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기택(2003). 장애 아동 언어지도의 이론과 실제. 충북: 협신사.
- 이승현(2000). 음악치료가 자폐아동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문희(1997). 심리극 집단 상담에서 주인공의 감정표현이 집단응집력과 회기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순화(2008). 음악치료가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보행기능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숙영(2008). 노래 부르기를 통한 경증치매노인의 자기표현 향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미(2004). 게임중독 청소년의 충동성과 불안 감소를 위한 노래 만들기 기법.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재(2000). 율동동요학습활동이 자폐성 장애아의 언어인지능력 발달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이효숙(2001). 유아음악극 활동의 교육적 효과.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희승(2001).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사상연구회**, 32(3), 61-83.
- 오성배(2006).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 탐색. **한국교육 사상연구회**, 44(2), 1-22.
- 오은주(200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치료서비스체계로서 집단예술치료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방임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 우영혜(2007). 아동이 지각한 의사소통과 공감능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연이(2000). 노래 부르기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 유태영(2001). 자기표현훈련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대인불안 및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진선주(2004). 성인 정신지체인의 감정 표현 향상을 위한 음악 활용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지은미(2001). 음악활동이 비행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성과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지방행정국(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황**.
- 전우홍(2009).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다문화 사회연구회**, 2(2), 13-15.
- 정성룡(2000). 심미적 음악 경험을 위한 교사의 질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정원호(2002). 음악치료학적 관점에서 본 국악교육의 적용실례1. **국악과 교육**. 20, 7-16.
- 정현주 외(2006).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 학지사.
- 정현주, 김동민(2005).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놀이극**, 서울: 학지사.
- 조성민(2009). 구조화된 노래 부르기가 자폐아동의 의사소통 기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천미은(2004). 음악치료가 학습장애아동의 자기표현, 사회성 및 학교생활 적응력향

- 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 천유화(2008). 음악 미적 경험으로서의 표현, 개념화, 분석, 평가 과정에 효과적인 인
발문.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최미환(2002). 언어지체 아동의 음악치료. 명지대학교 음악치료학과 제1회 정기세미
나.
- 최순혜(2005). 동화의 후속이야기 짓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 표현력 및 언어 창의
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윤미(2008). 음악치료활동이 학습장애 학생의 자기표현,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병철(1999). 음악치료학. 서울: 학지사.
- 최병상(2000). 동요 프로그램이 정인지체아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 최수민(2004). 집단 즉흥연주를 통한 성인의 내재적 동기에 관한 연구; 창조적 음
악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애나(2007). 음악치료가 소득계층별 아동의 공격성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
향;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 크리스천투데이(2008). 10월 31.
- 통계청(2009). 외국인 주민 현황.
- 허인숙(2000). 통합교육 장면에서 음악놀이 활동이 정인지체아의 수용언어와 표 현
언어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유정(2000). 행복감과 정서표현 성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 함자영(2005).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감정표현불능증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석사
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 행정안전부(2009). 지방자치 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 황지연(2001). 노래 부르기를 활용한 언어훈련이 자폐성 아동의 언어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황수진(2002). M. Reger의 자장가 21곡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

원.

Addler(1982).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Boxil, E. H(1998). Music Therapy for Developmentaly Disabled, New York. 김
태런, 엄편경, 정현지 편역(1998). **발달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 서울: 이화여
자대학교 출판부.

Rudolf E. Radocy & J. David Boyle, 최병철, 방금주 공역(2001). **음악심리학**. 서
울: 학지사.

ABSTRACT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on Improving Lingual and Emotional Self-Express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un-Sun Kim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on the lingual and emotional self-express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study was conducted once a week for 40 minutes each time from February 7th to May 3rd in 2010 for a total of 12 time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chosen from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ho study the Korean language at K. Labor Institute in Daegu.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was 3 children from the third grade: 2 boys and 1 girl.

As for the methodology, self-expression wa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 lingual and emotional - to examine the degree of each. Therefore, there were two types of questionnaires. The first questionnaire used the lingual self-expression scale designed by Kim, Sung, and Jo (2002) to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 ages when the children first perceived the language and when they could express the language. The results of the pre-test and

the post-test are represented on a graph. The second questionnaire used Rakos and Schroeder's (1979) scale, modified by Byun Kim (1980) to reflect a Korean background, to examine the children's emotional self-expression. The results of the second questionnaire compare the pre-test and post-test results and are represented as points on a graph.

The conclusiv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alyzing the differences of lingual self-expression in the pre-test and post-test revealed that the children's self-expression developed in receptive language for 5 months and in expressive language for 9 months after attending musical therapy.

Secondly, analyzing the emotional self-expression scales in the pre-test and post-test showed that the average post-test score increased by 8 points through musical therapy.

These results show that music therapy can be effective for improving the lingual and emotional self-express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 부 록 >

1. 언어 능력 검사 도구

<유아 언어 능력 (수용언어) 개인별 검사지>

월령	문항내용	평가 기준	전체	문 항					
				①	②	③	④	⑤	⑥
19~21 개월	1부정어 이해								
	2일상 사물 이름 이해								
	3신체부위 이름 이해								
22~24 개월	4동물이름 이해								
	5동작어 이해; 동작수행								
	6소유자 개념								
25~27 개월	7크기개념 이해								
	8부정적 상대 이해								
	9사물의 기능 이해								
28~30 개월	10지시 따르기; 두가지 사물								
	11동작어 이해; 그림지적								
	12의문사 이해								
31~33 개월	13세부적인 신체부위 이름 이해								
	14위치부사어 이해								
	15사물의 세부부분 이해								
34~36 개월	16동시 연결어미(-면서)이해								
	17지시 따르기								
	18'밤/낮'의 이해								
37~39 개월	19<부정-행위>문장이해								
	20과거/현재진행 문장이해								

	21길이 개념이해								
40~42 개월	22'같다/다르다'이해								
	23범주어 이해								
	24신체부위의 기능 이해								
43~45 개월	25연관된 어휘 이해								
	26<행위자+ 목적+ 행위>문장이해								
	27수여자(여격)이해								
46~48 개월	28수 개념 이해								
	29감정상태의 이해								
	30복수 이해								

55~60 개월	34계절이해								
	35간단한 은유 이해								
	36사동/피동 이해								
61~66 개월	37방향 이해								
	38측량도구 이해								
	39소유대명사 ‘내/네’ 구별								
67~72 개월	40간접적인 표현 이해								
	41설명문 이해 ; 사물								
	42관형구 이해								
73~78 개월	43‘전/후’ 이해								
	44설명문 이해 ; 상황								
	45어려운 낱말 이해								
합 계									

<유아 언어 능력 (표현 언어) 개인별 검사지>

월령	문항내용	평가 기준	전 체	하	위	문	항	⑥	
				①	②	③	④		⑤
19~21 개월	1 호칭을 포함한 두낱말 문장 사용 2 20개의 어휘 사용 3 크기 및 양의 개념 표현								
22~24 개월	4 ‘ㄱ’계열 소리 모방 5 주격 및 공존격 조사 사용 6 <목적격+ 행위>문장 사용								
25~27 개월	7 세 낱말 문장 만들기 8 부정어 사용 9 단순한 질문 사용								
28~30 개월	10 대명사 사용 11 신체 상태나 감정 표현 12 ‘이유’ 연결어미 사용								
31~33 개월	13 의문사 사용 14 일상사물의 기능 설명 15 상황설명								
34~36 개월	16 과거시제 사용 17 미래시제 사용 18 미래를 포함하는 복문 사용								
37~39 개월	19 질문에 대한 대답‘언제’ 20 등위절 사용 21 어려운 의문사 사용 ‘왜’ ‘어떻게’								
40~42 개월	22 위치 부사어 사용 23 ‘조건’ 연결어미 사용 24 반대말 사용								
43~45 개월	25 색 이름 사용 26 익숙한 이야기 재구성 27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46~48 개월	28 목적격 조사 사용 29 사동사 사용 30 비교급 사용								
49~54 개월	31 ‘ㅅ’‘ㅈ’계열 소리 모방 32 낱말 회상 33 낱말 정의								

55~60 개월	34 '옆' 위치 부사어 사용								
	35 상위범주어 사용								
	36 문장모방								
61~66 개월	37 썸의 단위 사용								
	38 스크립트 ; 사건의 전 개설명								
	39 문제해결표현								
67~72 개월	40 오류문장수정 ; 문법형 태소 어순								
	41 오류문장 수정;전, 후, 다음								
	42 피동사 사용								
73~78 개월	43 복문 사용								
	44 어미 활용								
	45 어려운 낱말 정의								
	합 계								

2. 자기표현 평정 척도

	번호	내용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내용적 요소	1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다					
	2	대화의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한다					
	3	대화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다					
	4	사과를 많이 한다					
	5	예의가 바르지 못하다					
	6	자신의 의사와는 다른 부득이한 이유를 내세워 변명한다					
	7	잘 아는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8	잘 아는 사이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9	잘 아는 사이에서는 자신의 입장만 고려한다					
음성적 자기표현	10	중얼거리는 것은 아니나 상대가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약하게 말한다					
	11	단호하게 말하지 못한다					
	12	말이 입안에서 중얼거린다					
	13	억양이 어색하다					
	14	‘예’ ‘음’ 등 말이 중간에 끊어진다					
	15	말하기 전에 주저한다					
	16	말하기 전이나 말하는 도중에 서두른다					
비언어적 자기표현	17	말할 때 상대를 바로 보지 못한다.					
	18	웃거나 찡거리는 등 얼굴표정이 진지하지 못하다					
	19	손을 비비거나 말을 굴리는 등 얼굴표정이 진지하지 못하다					
	20	몸이 어딘가 굳어있다					